

##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산시성(陝西省)

오종혁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ojh@kiep.go.kr, Tel: 3460-1286)

## 차 례 ● ● ●

1. 개요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경제정책 방향
  - 가. 경제성장
  - 나. 구조조정
  - 다. 지역개발
  - 라. 사회보장
4.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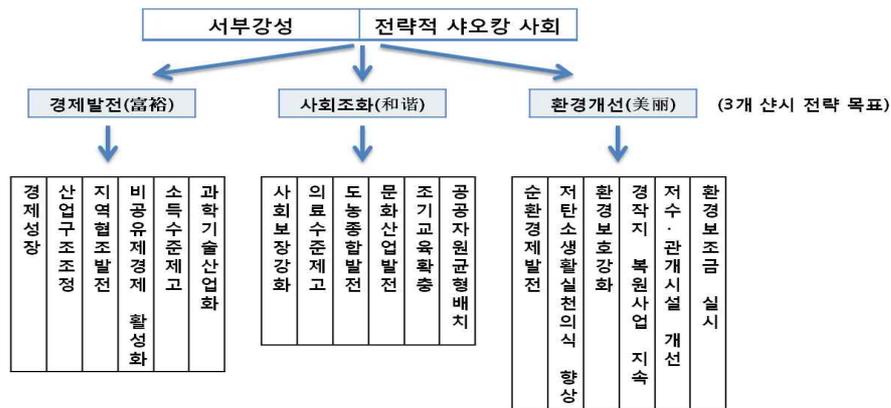
- ▶ 2014년 산시성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가 1월 13일부터 6일간 시안(西安) 시에서 개최되었음.
- ▶ 2013년 산시성 지역총생산액(GDP)은 1조 6,04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으나 목표치(12.5%)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비 및 순수출의 상대적 성장 둔화에 기인함.
  - 이에 2014년에는 경제성장 목표를 2013년 실제성장률과 동일한 11%로 설정하고, 그 밖의 목표들도 대부분 전년보다 하향 조정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함.
- ▶ 산시성은 2014년에도 여전히 공업 및 농업 발전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 환경 등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8대 정책과제 중 4개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점산업 및 농업의 생산증대, 자동차·IT 등 신지주산업 육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음.
  - 그 밖에 △ 에너지자원 산업 고도화 △ 환경오염 산업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경제체제 전반의 부정부패 차단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계획임.
- ▶ 최근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산시성은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지닌 자동차·IT·환경 등의 업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진출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한국의 산시성에 대한 수출이 무려 523% 증가하는 등 최근 중국 내에서 한국과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한·산시성 간 무역협력 MOU 체결로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 부품이나 IT 업종에 있어 소프트웨어 혹은 IT 서비스의 진출이 유망하며,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진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 개요

■ 2014년 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산시성 양회(兩會)가 시안(西安) 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시성 3대 전략 목표(3個陝西)’ 추진과 함께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 구축, 시셴장벽(西咸壁壘), 환경문제 등의 이슈가 주로 논의됨.

- 산시성 인민대표대회에는 인대대표 575명, 정치협상회의에는 정협위원 649명과 특별위원 20명이 참석하였고, 총 802건의 안건 중에 760건이 입안되었음.<sup>1)</sup>
- 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경제·정치·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입안된 안건 중 사회보장과 민생개선에 대한 안건이 435건으로 약 60%를 차지함.<sup>2)</sup>
- 2014년 산시성 양회에서는 경제발전·사회조화·환경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시성 3대 전략 목표 추진이 강조되었음.
- 산시성 3대 전략 목표는 2013년 4월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으며, 2020년까지 서부지역 내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서부강성(西部強省)’, 중산층 사회를 의미하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함(그림 1 참조).

그림 1. 산시성 3대 전략 목표(3個陝西) 체계



자료: 范鵬 외(2013), 『中國西北發展報告2013』, p. 4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편집.

- 그 밖에 산시성에서는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2013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셴장벽은 2002년부터 시작된 시안·셴양(咸陽)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의미하며, 양회에서

1) 「省十二屆人大二次會議昨閉幕 趙正永講話」(2014. 1. 20), 『西部網』.  
 2) 「省政協十一屆二次會議勝利閉幕 收到提案802件」(2014. 1. 19), 『西安晚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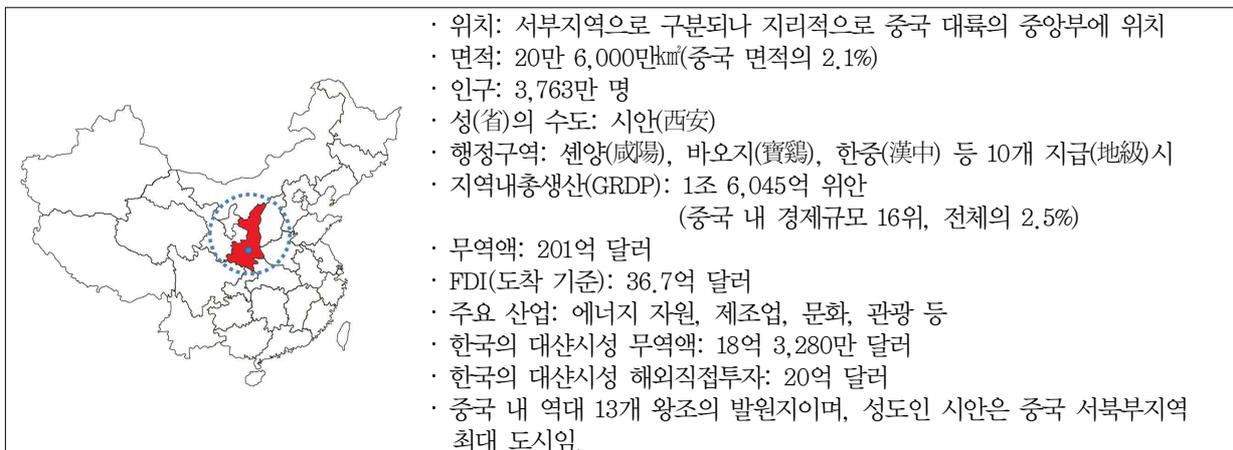
는 도시통합과 관련하여 교통부분에서의 협력을 강화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환경오염과 스모그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산시성 짜오정용(趙正永) 서기는 “환경오염문 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sup>3)</sup>

■ 본고에서는 산시성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고자 함.

- 2014년 산시성은 3대 전략 목표추진을 바탕으로 한 ‘안정속의 성장(穩中求進)’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 본고에서는 「정부업무보고」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함.

### 클상자 1. 산시성 위치와 개요(2013년)



자료: 필자 편집(그림); 주시안 총영사관(2013. 9), 『중국 서북3성 개황』, 陝西省統計局(2014. 2. 28), 『2013年陝西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한국무역협 회(2014), 중국무역통계([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id=cts](http://stat.kita.net/top/state/main.jsp?lang_gbn=null&staid=cts), 검색일: 2014. 2. 28).

## 2. 주요경제지표 분석

■ 2013년 산시성 지역총생산액(GRDP)은 1조 6,04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으나 목표치(12.5%) 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이는 주로 소비 및 순수출의 상대적 성장 둔화에 기인함.

- 산시성은 2013년 국내외 경제침체와 더불어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목표 성장률보다 1.5%포인트 낮은 11.0% 성장에 그쳤으며, 이는 최근 4년간 높은 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한 것과 대조적임.<sup>4)</sup>

3) 『陝西用足法治重器治污降霾——省人大常委會多措并举推進大氣環境質量改善』(2014. 1. 8), 『陝西日報』.

4) 『陝西《政府工作報告》解讀·回望2013』(2014. 1. 15), 『人民網』.

- 산시성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 2013년 상반기 농산물 생산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하였으며, 7월부터 옌안(延安) 지역에 잦은 폭우가 이어지는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sup>5)</sup>
- 특히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제시했던 목표에 비해 2.9%포인트 낮은 14%를 기록하였으며, 수출 증가율도 목표에 비해 1.8%포인트 낮은 18.2%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성과를 보임.
- 다만 수입 증가율은 메모리, 철광석,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산시성은 성장지향적 경제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투자의존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

- 지방정부 지도자에 대한 실적평가 기준을 경제성장률 위주에서 환경, 에너지 소비, 정부채무, 안전생산 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산시성은 2014년 더 이상 과도하게 높은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sup>6)</sup>
- 산시성의 2014년 경제(GRDP)성장률 목표는 11%로 전년도 목표보다는 1.5%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성장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임.<sup>7)</sup>
- 이에 따라 규모이상 공업생산액,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소매총액 등의 증가율 목표를 2013년 실제 성과와 유사하거나 소폭 하향 조정하였음.
- 고정자산투자는 2013년 사상 최대로 높은 증가율(24.1%)을 기록한 가운데, 2014년에도 전년도 목표와 유사한 수준인 25%를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있어 투자의존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sup>8)</sup>

표 1. 산시성의 2013년 경제성과와 2014년 목표

항목	2013년 목표 <sup>1)</sup>	2013년 실제 성과	2014년 목표 <sup>1)</sup>
지역총생산(GRDP) (억 위안)	-	16,045	-
성장률 (%)	12.5	11	11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16,000	15,934	19,700
증가율 (%)	25	24.1	25
규모이상 공업총생산액 증가율 (%)	16	13.1	13
문화산업 성장률 (%)	16	26	25
사회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 (%)	16	14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	4 이내	3	-

5) 「2013上半年陝西經濟穩中趨好 GDP同比增长11%」(2013. 7. 24), 『西部網』; 「陝西公布2013年8大氣候事件 氣象災害發出警告」(2013. 12. 31), 『西部網』.

6) 「關於改進地方黨政領導班子和領導幹部政績考核工作的通知」(2013.12.10), 『人民網』.

7) 「2014: 陝西如何換擋——陝西省經濟形勢展望」(2014.1.3), 『陝西傳媒網-陝西日報』.

8) 陝西省統計局(2014. 2. 28), 「2013年陝西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표 1. 계속

항목	2013년 목표 <sup>1)</sup>	2013년 실제 성과	2014년 목표 <sup>1)</sup>
지방 재정수입 증가율 (%) (예산 내 수입)	16	16.8	13
FDI(도착기준, 억 달러)	36.7	36.7	41
수출 증가율 (%) <sup>2)</sup>	20	18.2	(119억 달러)
수입 증가율 (%) <sup>2)</sup>	10	61.1	(105억 달러)
도시 1인당 가치분소득 증가율 (%)	14	10.2	11
농촌 1인당 순소득 증가율 (%)	15	12.8	12
실업률 (%)	4.5	4 이내	4.5 이내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율 (%)	-3.5	-3.6	-3.3

주: 1) 2013년, 2014년 목표는 각각 산시성의 2013년, 2014년 「정부업무보고」에 제시된 항목별 목표 수치임.

2) 2014년에는 수출, 수입에 대한 목표액만 제시하고 증가율은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2013年陝西政府工作報告」; 「2014年陝西政府工作報告」; 陝西省統計局(2014. 2, 28), 「2013年陝西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 3. 경제정책 방향

■ 산시성의 2014년 8대 정책과제를 경제성장·구조조정·지역개발·사회보장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점기업 및 농업 생산증대, 자동차 및 IT 등 신지주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 관련 과제가 많고, 환경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과제가 추가되는 등의 특징을 보임.

- 8대 정책과제 중 4개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중점기업 및 농업의 생산증대, 자동차·IT 등 신지주산업 육성,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기반 구축 등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됨.
- 구조조정 분야는 주로 고오염 산업, 대기질 개선, 경제전반의 부정부패 차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임.
- 지역개발 분야는 시센신구 국가급 비준으로 도시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 생태환경 개선사업 등이 지속될 것임.
- 사회보장은 신형도시화와 관련하여 농촌노동력의 도시이주 조건 개선, 취업 및 창업지원과 더불어 최저생활, 의료, 교육 분야 등에 있어 보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안전생산과 사회치안체계 개선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 가. 경제성장

■ 2014년에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산시성은 에너지 공급기반 확대 구축, 대형장비제조기업에 대한 세수인하, 네거티브 리스트 조정, IT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에너지, IT, 자동차 등 중점 산업 및 기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500개의 신규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대할 예정임.

- 또한 대형 장비 제조기업의 연관 산업 확대와 고도화를 위하여 법인세·부가세 외에도 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수우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산시성은 2013년 기준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항공·우주·자동차 및 부품, 전력송전장비 등 제조기업 중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한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5%, 부가가치세 4.5% 감면 외에 부동산세(房產稅)와 토지사용세(土地使用稅) 등을 감면해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도 이를 지속할 예정임.<sup>9)</sup>
- 기초 인프라·민생개선·환경보호 등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정하여 향후 민간 및 외자에 대해 투자가능 분야를 확대할 예정임.
- 주요 프로젝트로는 셴양-쑤이(咸陽-旬邑) 고속도로, 시안 지하철 2호선, 한중(漢中)공항 건설, 동창(東莊)댐, 황허인쇄이(黃河引水: 황허의 물을 산시성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수자원 확보 정책사업) 등이 있음.<sup>10)</sup>
- 차세대 인터넷 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시안을 중심으로 정보소비<sup>11)</sup>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IT인프라 건설을 확대할 계획임.

■ 2013년에 비하여 현대농업<sup>12)</sup>단지 건설과 주요 농작물에 대한 생산효율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 발전 정책 순위가 상향 조정되었고, 문화와 서비스 산업의 융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현대농업단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계화·규모화를 유도하여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며, 주요 농작물 생산에 대한 행정책임제(行政首長負責制)를 도입하는 등 생산량과 품질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함.
- 문화산업 발전이 산시성 3대 전략 목표의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되었으며, 향후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30개의 문화 프로젝트 실시, 투융자(投融資) 플랫폼 구축, 투자기금 확대 등을 추진함.

■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IT 산업을 새로운 지주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산시성 전체 공업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 매우 높은 편임.<sup>13)</sup>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시성은 비야디(BYD)자동차 산시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70만 대로 확대하고, 30만 대 규모의 지리(吉利)자동차 공장, 삼성SDI 전기차용 이차전지 제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등 자동차 산업 육성을 촉진함.
- 삼성SDI는 1월 22일 시안에서 안칭환신(安慶環新)그룹과 함께 최대 6억 달러 규모의 제조법인 설립을 발표하였음.<sup>14)</sup>

9) 西安市財政局·西安市工業和信息化委員會·西安市國家稅務局 西安市地方稅務局(2013. 6. 9), 『陝西省地方稅務局關於上報裝備製造業企業2012年稅收列支返還有關情況的通知』.

10) 『陝西《政府工作報告》解讀: 展望2014』(2014. 1. 15), 『人民網』.

11)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다운로드, 스마트 단말기, 전자상거래 등 IT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를 통칭함.

12) ‘현대농업’이란 농식품 생산에 대해 기계화·규모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관광농업·휴양 등의 파생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임.

13)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함. 陝西省統計局(2014. 2. 28), 『2013年陝西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14) 2015년 상반기 생산 예정임. 『삼성SDI 중국 시안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2014.1.23), 『매일경제』.

- IT 산업의 경우 삼성전자의 진출로 인해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 분야 발전에 중점을 두고, 실리콘소재와 패키징·테스트(후공정)등 연관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그밖에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차세대 IT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
- 「산시성 IT 산업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10년 750억 위안 수준의 IT 산업 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 위안으로 4배 확대할 예정이며, 그중 삼성전자 관련 생산액이 전체 1/3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sup>15)</sup>
- 그 밖에 시안 평시신청(沔西新城)에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내용이 2014년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예정임.

- 국가적 차원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 추진 움직임에 따라 산시성은 선제적으로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회에서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 5월 시차후이(西洽會)<sup>16)</sup>와 동시에 제 1회 실�크로드 경제벨트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며, 이를 국제화 협력 플랫폼(國際化合作平台)으로 활용할 예정임.
- 또한 국제 화물철도인 '창안호(長安號)' 개통을 통해 수출입 규모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며, 시안-중앙아시아 간 관광열차 운행 연구, 중앙아시아·서아시아·유럽 노선에 대해 직항노선 확대, 시안종합보세구의 기능 개선 등을 통해 대외개방도를 확대할 예정임.
- 2013년 말 개통한 창안호는 시안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운행되며, 적재 물량이 아직 부족한 관계로 2014년 상반기까지는 월 2회 운행할 예정임.<sup>17)</sup>
- 그 밖에 대만, 홍콩 등 과 협력주간 개최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표 2. 2013년과 2014년 산시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경제성장

2013년	2014년
1.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지속 - 기초 인프라, 민생, 농업, 전력 송전 분야 등 투자 확대(고속도로 1,000km, 도시간 철도 건설 확대, 시안지하철, 석탄 5,000만 톤, 석유 540만 톤 생산 등) - 판매확대, 안정적인 생산; 성장 유지를 기조로 공업 운용 방식 개선; 에너지화학 상품시장 확대; 중형 트럭 및 에너지 절약 자동차 상품 판매 확대; 주요 기술장비 생산기업에 대한 세계 우대정책;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 등	1. 핵심 분야 성장 지원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에너지, IT, 자동차 등 중점 산업 및 기업의 생산 확대, 기술개발 및 신기술을 도입한 장비제조기업에 대해 세수감면 정책 실시, 태양광 발전소건설 가속화 등 - 네거티브 리스트 조정을 통해 민간 및 외자 투자활력 제고 - 내수수요 확대조치 실시 2. 현대농업단지건설, 농업생산력 강화

15) 「陝西省“十二五”電子信息發展规划」; 「多个電子信息项目落户西安加快形成陝西IT產業“高地”」(2012. 12. 3), 『新華網』.

16) 매년 4월 시안에서 개최하는 '동서부 협력 및 투자무역상담회(中國東西部合作与投資貿易洽談會)'를 의미함. 2014년 제18회 행사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올해는 실�크로드를 테마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이탈리아 등 11개국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임. 在线西洽會 홈페이지(online.gov.cn) 참조.

17) 「西安直通阿拉木圖 長安號國際貨運班列明首發」(2013. 11. 27), 『西安新聞網-西安晚報』.

표 2. 계속

2013년	2014년
<p>2. 소비확대 조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분야 유대정책 실시 및 신용대출 등 소비촉진 조치 실시, 유급휴가제도 실시, 문화·여가·체육 등 서비스 확대 등</li> <li>- 소비품 품질 및 가격 안정 확보</li> </ul> <p>3. 산업구조 전략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전자부품소재, 반도체, 소프트웨어, 항공, 우주, 신소재 등</li> <li>- 서비스업 발전: 시안 국가 서비스 종합개혁 시범지역 지정,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관광 등</li> </ul> <p>4. '삼농(三農: 농촌, 농업, 농민)' 업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농업단지(園區) 발전 가속화</li> <li>- 도농발전 일체화</li> <li>- * 농업강화·농민우대(強農惠農)정책 실시</li> </ul> <p>8-2. 개혁개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경제 발전 수준 제고: 유럽, 일본, 한국, 장삼각(長三角), 주삼각(珠三角) 지역의 기업유치 확대, 동부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안보 및 주요 농산물 생산 효율 제고</li> <li>- (2013년 4-1의 *유지), 220개 성급 현대농업단지 기능 제고, 80개 성급원구 신규 건설 등</li> <li>- (2013년 4-3의 *유지)</li> </ul> <p>3. 새로운 지주산업 육성, 경제구조 업그레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IT 등 새로운 지주산업의 성장 추진(비야디, 지리 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유치) 등</li> <li>- 평시신청(洋西新城)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등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li> <li>- 문화 및 관련 서비스업 융합 발전: 높은 수준의 문화자산 운영 및 투자자 플랫폼 구축, 문화산업 투자기금 10억 위안으로 확대 등</li> </ul> <p>7. 실크로드 경제벨트 기점, 내륙 개방기지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실크로드 경제벨트 국제박람회를 국제화 협력 플랫폼(國際化合作平台)으로 활용</li> <li>- '창안호(長安號)' 국제 화물철도 정기운행 추진, 시안·중앙아시아 간 관광열차 운행 연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노선에 대해 직항노선 확대, 시안종합보세구의 기능 개선 등</li> <li>- 산시-대만, 홍콩, 마카오 협력 주간 활동 지속적 개최, 한국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확대, 산시성 대표단 카자흐스탄 방문 협력 프로젝트 논의</li> </ul>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산시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陝西政府工作報告』; 『2014年陝西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 나. 구조조정

■ 산시성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오염 발생 산업에 대해 설비 개선·생산관리 기준 강화를 추진하여 생산기준 미달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과학기술의 산업기술화 전환을 지원할 예정임.

- 산시성 에너지 산업은 대부분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석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임.

○ 이를 위해 석탄석유(coal liquefaction), 에틸렌탄화수소 등 석탄에너지 변환기술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 2013년에는 주로 오염물 배출 통제, 에너지 절약 등에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4년에는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 비철금속, 방직, 제련, 건축재료 등 업종에 대해서 설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규제방안도 발표할 예정임. 또한 철강, 시멘트 등 고오염 발생 업종의 생산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미달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임.

- 산업별로 가치사슬(產業鏈) 고부가가치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와 더불어 그간 개발된 과학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심각해진 대기오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석탄 대신 가스·전기 사용 유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후차량 폐차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석탄 사용량을 연간 1,000만 톤 가량 줄이는 대신 가스나 전기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석탄가스 및 화력발전 관련 설비 등은 시안시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임.
- 그 밖에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높이고, 쓰레기 소각 등도 금지하도록 함.
- 대기오염물질을 다수 배출하는 노후차량(黃標車)의 폐차를 유도하고, 청정연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시안, 바오지 등 5개 도시를 메탄올(甲醇) 자동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2013년에 비해 정부기구 및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수준을 한층 높일 예정으로, 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2014년에는 성(省)정부 외에도 시(市)와 현(縣)급 정부기구까지 개혁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신규 행정허가에 대해서 관리수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함.
- 또한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 비율을 높이고, 정부 조달사업 진출에 대한 방법 제정, 탐광권 양도의 국가입찰경매(招拍挂) 방식 전환, 자원세 개혁, 정부 채무관리 규범화 등을 추진함.
-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 금융기구 경쟁력 제고, 용자담보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됨.

표 3. 2013년과 2014년 산시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구조조정

2013년	2014년
<p>3. 산업구조 전략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화학 산업 고도화: 석탄층가스, 세일가스 개발 등</li> <li>- 각 산업별로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이전, 퇴출 유도를 통해 집중도 제고, *비철금속, 방직, 건축재료 등 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공간 배치 최적화</li> </ul> <p>6. 생태문명 건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배출 통제, 공업·건축·교통 및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등</li> <li>- 웨이하(渭河) 오염방지 3개년 프로젝트,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 통제 강화, 석탄 발전 등에 대한 탈황시설 등</li> <li>-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li> </ul>	<p>3. 새로운 지주산업 육성, 경제구조 업그레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3-1의 *유지), 에너지 소비총량 실시방안 발표 등</li> <li>- 산업별 가치사슬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과학기술의 산업화 등</li> </ul> <p>6. 생태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 스모그 억제, 석탄가스 및 화력발전 관련 설비 이전, 자동차 매연에 대한 관리 등</li> <li>- 오염 치수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li> </ul> <p>8. 중점영역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개혁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省) 정부기구 개혁 실시(市, 縣까지 확대), 신규 행정허가 엄격히 통제 등</li> </ul>

표 3. 계속

2013년	2014년
<p>8. 개혁개방의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기업 개혁 심화, 비공유경제 발전 관련 법률, 정책 개선, 시안 과학기술 개혁 시범기지 건설, *소득 분배제도 개혁 등</li> </ul> <p>10. 정부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치주의 강화, 행정입법 업무 강화</li> <li>- 행정체제 개혁 심화, 정부 업무공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체제 개혁 심화, 정부 조달사업 진출에 대한 방법 제정, 탐광권 양도의 국가입찰경매(招拍掛)방식 전환, 자원세 개혁, 정부 채무관리 규범화 등</li> <li>- 정부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li> <li>- (2013년 8-1의 *유지)</li> </ul>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산시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陝西政府工作報告』; 『2014年陝西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 다. 지역개발

■ 시안·셴양(咸陽) 두 도시 사이에 건설 중인 시셴신구가 2014년 1월 중국 내 7번째 국가급 신구로 비준됨에 따라 도시지역에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녹화, 생태복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임.<sup>18)</sup>

- 시셴신구가 국가급으로 비준되고, 도시 건설 및 관리 수준 제고방침에 따라 도시간 연결도로, 공동구(地下管廊),<sup>19)</sup> 오수처리설비 등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며, 스마트시티 건설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자원을 관리하여 도시 관리에 혁신을 추진할 것임.

○ 시셴신구의 면적은 882km<sup>2</sup>로 향후 녹색을 테마로 강조한 ‘전원(田園) 도시’ 건설과 첨단기술 산업,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의 허브로서의 발전을 추진 중임.<sup>20)</sup>

- 환경개선을 위해 관중(關中) 대지 도시녹화(園林化), 산베이(陝北) 고원 녹화사업 외에도 새로운 퇴경환림(退耕還林: 개발 경작지를 원래 산림으로 되돌리는 것) 등 중요 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과 관련되어 각종 회의 및 기구 유치, 자유무역구 설립을 추진할 예정임.

- 연내 유라시아 경제포럼, 실크로드 경제벨트 주변(沿線) 도시 라운드 회의 개최, 상하이협력기구(SCO)<sup>21)</sup> 개발은행 및 에너지 클럽 시안 유치 등을 강조하였음.

18) 국가급 신구는 발전목표·방식 등에 있어 국무원의 관리를 받으며, 특수 우대정책과 권한을 가지게 됨. 중국 내에는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 톈진 반하이(濱海) 신구, 충칭 량장(兩江) 신구 등 6개의 국가급 신구가 있었으며, 2014년 1월 시셴신구와 꾸이저우의 꾸이안(貴安) 신구가 각각 새로이 국가급 신구로 비준 받음. 『西咸, 貴安升為“國家級” 中國8大新區』(2014. 1. 10), 『中國經濟網』.

19)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등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관련 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임.

20) 오종혁(2012), 『중국 도시 정보 시리즈-산시성 시안시(陝西省 西安市)』, 중국권역별성별기초자료 12-10, p.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 상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는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지난 2001년 설립한 정부간 협력 기구. 설립 목적은 회원국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 증진 외에 정치·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교육·에너지·교통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주, 정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신질서를 구축하는 것임(<http://www.sectsc.org/CN11/brief.asp>).

- 그 밖에도 2015년까지 중앙아시아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시안에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에너지·기술 협력 사업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sup>22)</sup>

표 4. 2013년과 2014년 산시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지역개발

2013년	2014년
<p>5. 도시화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형도시화 건설: 시첸신구가 국가급 혁신도시 발전 시범구 추진, 관중도시군 확대·산베이(陝北)·산남(陝南) 지역의 거점도시 발전</li> <li>- *도시 관리 공공서비스 개선, 교통정체 해소, 위생·생태환경 등 개선 등</li> <li>- 지역간 개별정책(一市一策) 추진: 옌안지역의 국가 도농종합 개혁시범지역 편입 추진, 바오지시의 성내 부(副)중심도시 역할 강화, 웨이난(渭南)의 공업화 추진 등</li> </ul> <p>6. 생태 문명 건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지, 삼림 등에 있어 생태복원 실시 등 국토 공간개발 최적화</li> </ul>	<p>4. 신형도시화 발전 수준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5-1의 *유지), 신형도시화 발전 계획 제정, 시안 중심의 주변 4개 도시를 성장 축으로 지정</li> <li>- (2013년 5-2의 *유지), 도시간 연결도로, 공동구(地下管廊), 우수처리설비 등 건설 투자 확대, 도시 관리 시스템 혁신,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공공자원 통합 조정 등 실시</li> </ul> <p>6. 생태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 건설 강화, 새로운 퇴경환림 등 생태복원사업 실시</li> </ul> <p>7. 실크로드 경제벨트 기점, 내륙개방기지 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유라시아 경제포럼 개최, 실크로드 경제벨트 주변(沿線) 도시 라운드 회의 개최, 상하이협력기구(SCO) 개발은행 및 에너지 클럽의 시안 유치 등</li> <li>- 중앙아시아와의 자유무역단지(園區)설립 비준 요청</li> </ul>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산시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陝西政府工作報告』; 『2014年陝西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 라. 사회보장

■ 신형도시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촌노동력의 도시이주 조건이 개선되고, 약 90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보임.

- 농촌노동력의 도시이주 조건 개선을 위해 후커우(戶口, 호적제도) 취득 조건 완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 민생개선 분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최저생활·양로·의무교육 등에 있어 보장 범위 확대, 안전생산과 사회치안체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임.

-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대학생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건설 및 창업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

- 사회보장에 대한 수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저생활, 양로 등 복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음.

- 교육부문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의 3년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22) 『陝西省明年力爭設立絲綢之路經濟帶西安自貿區』(2014. 1. 2), 『華商網』.

위한 학교 건설을 추진하고, 중·고교별 특성화 발전 등을 추진할 방침임.

- 공공 의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보장수준을 제고하고, 의료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300위안에서 350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안전책임제를 도입하고, 테러 등 사회 불안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치안체계를 개선할 예정임.

■ 그 밖에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각종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공공체육관, 디지털 영화관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건설이 추진될 예정임.

-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보장성 주택 건설은 2014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며, 약 45만 채(신규 21만 8,000채, 재건축 21만 1,000채)의 건설이 추진 될 것으로 보임.
- 그밖에 대형극장, 예술센터 등 랜드마크 성격의 건축물을 늘리고, 공공체육관, 디지털 영화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을 강화할 예정임.

표 5. 2013년과 2014년 산시성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사회보장

2013년	2014년
<p>7. 민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지출의 80%를 민생개선에 사용</li> <li>-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62만 채 건설(그중 신규 33.7만 채)</li> <li>- *도시주민 사회보장 수혜범위 확대, 보장성 주택 건설 확대, 낙후지역 주민 이주 실시 등</li> <li>- *취업정책 적극 실시</li> <li>- *의무교육 강화, 민간 설립 학교 확대</li> <li>- *공공위생 업무 강화</li> <li>- 공공문화 사업에 대한 서비스 능력 강화</li> </ul> <p>9. 사회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사구(社區: 한국의 동에 해당)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li> <li>- 공공 안전 시스템, 긴급 대응능력 강화</li> <li>- 군중 권익 보호제도 개선</li> </ul>	<p>4. 신형도시화 발전 수준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의 도시민화, 시안시 이주 조건 개선, 역대 후커우(戶口, 호적) 취득 조건 완화, 농촌 노동력 연내 90만 명 도시 이주 목표 등</li> </ul> <p>5. 민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7-4 *유지), 대학생 창업지원정책 제정, 취업촉진: 취업 및 실업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기술훈련 및 취업지원업무 강화 등</li> <li>- 사회보장 범위 확대, 최저생활보장, 양로, 장애인 지원, 아동 복지 등 강화</li> <li>- (2013년 7-2, 3 *유지) 45.5만 채 건설(그중 신규 21.8만 채, 재건축 21.1만 채)</li> <li>- (2013년 7-5 *유지), 취학 전 교육 3년 행동 계획 실시, 중·고교별 특성화 발전 추진 등</li> <li>- (2013년 7-6 *유지), 위생관리,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 6개 분야 종합개혁 등</li> <li>- 안전 생산 책임제 실시, 테러대응체계 및 치안체계 강화 등</li> <li>- 공공문화 서비스 시범구역 및 산메이 문화생태보호 실험구역 건설, 현(縣)급 이상 도시의 공공체육관·디지털 영화관 건설·문화 유산·역사 문물 보호 강화 등</li> </ul> <p>8. 중점영역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개혁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1인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 허용 정책(單獨二孩) 실시 등</li> </ul>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산시성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陝西政府工作報告』; 『2014年陝西政府工作報告』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 4. 평가 및 시사점

■ 산시성은 2014년에도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성장 목표를 크게 낮추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산시성은 2014년에도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8대 과제 중 4개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됨.
- 그러나 2014년에는 경제성장 목표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고 대부분 전년도에 제시된 목표보다 하향 조정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함.
- 이는 지방정부 지도자에 대한 실적평가 방식이 경제성장률 위주에서 환경, 에너지 소비 등으로 다변화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산시성은 에너지 산업 고도화 외에 자동차, IT 등 새로운 지주산업 육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석탄 중심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산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삼성전자 유치로 인해 향후 빠른 발전이 예상되는 IT 산업의 가치사슬을 보다 발전시켜나갈 예정임.
- 국가적 차원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산시성은 2014년 관련 행사 개최와 지원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충칭, 간쑤(甘肅), 닝샤(寧夏) 등 중국 내 타 지역들과 개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향후 산시성 등 서부지역에도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최근까지 산시성을 포함한 서부지역은 환경기준이 동부지역에 비해서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었으나, 2014년에는 고오염 산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생산에 대한 환경기준 미달 시 시장에서 퇴출을 추진하는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 산시성 로우친젠(婁勤儉) 성장은 양회에서 “GDP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녹색 자연환경(青山綠水)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국가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강조함.<sup>23)</sup>
- 그 밖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발생이 적은 가스, 전기로의 전환 유도, 노후차량 폐차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 기업생산에 있어 이러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3) 『陝西用足法治重器治污降霾——省人大常委會多措并举推進大氣環境質量改善』(2014. 1. 8), 『陝西日報』.

- 최근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산시성은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지닌, 자동차·IT·환경 등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협력·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삼성전자가 시안에 반도체 제조법인 투자를 진행한 이래 59개의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였으며, 2013년에 한국의 대산시성 수출이 무려 523% 증가하는 등 최근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산시성과 산업통상자원부가 △ 신산업 분야 기술 및 인적교류 촉진 △ 협력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 한·중 상생 모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무역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기업진출이 확대되고 있음.<sup>24)</sup>
- 또한 산시성 「정부업무보고」에 한국기업 투자 유치확대를 명시하고 있어, 진출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기업은 주로 △ 반도체 △ 통신 △ IT 서비스 △ 자원가공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대부분 시안 하이테크기술 산업 개발구(西安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 부품, IT 분야(소프트웨어 혹은 IT 서비스)의 진출이 유망하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도 유망분야임.
  - 시안에는 시안교통대학,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 등 우수대학이 다수 있어, 기술인력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관리급 인력, 세무법률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고려한 진출전략이 필요함. KIEP

2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2. 11. 30), 「한국과 중국 섬서성, 경제협력 실크로드 만든다」.